

# ‘연봉 잔치’ 광주문화재단 직원들 4억원 토해낼 판

전·현직 직원 20여명  
무분별 경력 인정해 과다 지급  
광주시 감사결과 드러나  
재단 “잘못된 관행 뿌리 뽑아야”

광주문화재단 직원들이 일하고 받았던 연봉 중 4억여원을 되돌려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전 직장이나 단체의 경력 증명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연봉을 과다하게 책정해 버린 일이다.

재단 안팎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재단 창립 초기에 잘못된 관행이 뒤늦게 불거졌고, 명확한 규정에 따라 연봉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다 책정 임금 4억여원=광주시의 감사 결과 드러난 광주문화재단의 과다 책정 임금은 4억여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감사를 통해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2011년 출범 이후 직원들의 보수 산정을 잘못 적용해 임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관행을 적발했다.

재단은 전·현직 직원 20여명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오는 20일까지 소명할 것을 통보했다. 직원에 따라 환수 금액은 다르지만, 일부 직원이 되돌려 줘야 하는 돈은 수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관계자는 “감사에 적발된 것은 사실이며, 아직 직원별 소명이 끝나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경력 인정 등이 문제=이 같은 문제는 호봉을 산정하면서 산출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거졌다. 재단은 지방공무원보수지침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재단 팀장(3급)의 연봉은 4000~6000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는데, 이 과정에 호봉이나 경력 등이 산출 기초가 된



광주문화재단이 그동안 잘못된 보수 규정을 적용, 직원들에게 임금을 과다 지급했다가 광주시 감사에 적발됐다. 사진은 재단 사무실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다. 경력이 많은 팀장은 최고 6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아무 경력 등이 없는 초임 팀장이라도 4000만원은 받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재단은 창립 초기, 대부분 팀장의 연봉을 상한액인 6000만원으로 책정하면서 관련 경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상 광주시 등 지방공무원보수지침에 따라 임금을 주는 기관들의 비슷한 연봉 산정의 경우, 상한 기준액과 하한기준액의 평균 수준인 5000여만원에 대부분 연봉을 책정하는 것에 비해 과한 금액이다.

◇재단 “잘못된 관행 뿌리 뽑겠다”=

재단의 과다지급 연봉 환수와 관련, 일각에서는 ‘십하다’는 불만소리로 터져나오고 있다.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일로 확대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명 과정을 지켜보며 일정 부분 시의 판단과는 달리 환수 금액 등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과다지급 탓에 직원별 연봉 차이가 너무 컸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잡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재단 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이에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직급 간 연봉 차이가 커 그동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직원들도 많았다”면서 “일한 만큼 많

이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술한 산정 기준으로 연봉이 늘었던 것은 잘못된 일이다”고 말했다. 재단도 강경한 입장이다.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 뒤, 잘못 지급된 임금은 환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확한 기준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재단 서영진 대표이사는 “창립 초기에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다”면서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겠지만 문제가 확인되면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동물 친구들과 함께 하는 내친구 키쭈 팡팡

23일까지 DJ센터 전시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친구들과 함께 하는 내친구 키쭈 팡팡’ 행사가 오는 23일까지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숲속의 마을 생태 곤충장, 땅속의 무법자 파충류관, 나는야 재주꾼 야생동물관, 따라쟁이 영무새 조류관, 미니미니 소공원 등을 통해 모두 300여종의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또 빨간 망토와 동물들이 참여하는 에듀컬 공연과 나의 반려견을 위한 동물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또 동물 조련 이벤트, LED 퍼즐 불력 등 별도의 체험비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문의 062-372-03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아리랑대축전 창작 플래쉬몹 UCC공모

만남·한과 흥 주제  
15작품 선정  
수상작 본행사 영상으로

오는 9월 개최되는 제4회 광주아리랑대축전 창작 플래쉬몹 UCC공모전(이하 UCC공모전)이 진행된다.

공모전은 ‘지구촌의 한(恨)과 흥(興)’에 맞춰 ‘명대부(만남)’과 ‘아리랑(한과 흥)’을 주제로 진행되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담긴 플래쉬몹 UCC 작품 총 15개를 선정한다.

‘UCC 공모전’ 수상작은 창의성, 주제 및 연관성, 완성도 등 다양한 심사 항목을 통해 총 15개 작품을 선정, 대상 300만원 등 총800만원 상금이 수여

한다. 수상작은 본행사에서 축하공연 영상으로 활용되고, 현장에서 직접 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계획이다.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며 응모자격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국내의 단체다. 작품은 3~5분 내외 창작 플래쉬몹 영상으로 제한한다. 수상작 최종발표는 9월 4일이다.

‘제4회 광주아리랑대축전-랑대부 아리랑’은 기존의 아리랑축제와 브랜드공연축제, 빛고을합창페스티벌등을 통합,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도정 앞 민주광장과 빛고을시민문화관 등에서 열린다.

문의 062-670-797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별★장’으로 밤피서 오세요

대인예술시장 야시장  
7~8일·21~22일 열려

‘시장, 도심 피서지로 변신하다.’ 대인예술시장에서 열리는 야시장 ‘별장’ 8월 행사가 7~8일, 21~22일 두차례 열린다.

행사 테마는 여름의 추억을 느끼게 해주는 ‘예술로 빙빙빙’이다.

테마거리에서는 포니차 빙수가게와 여름나기 테마체험들이 준비되어 있고, 부채를 비롯해 테마를 담아 낸 다양한 아트상품을 만날 수 있다.

이번 달 길거리 공연 역시 ‘쿨~하게’가 컨셉이다. 워디켓, 샌치한 버스, 바다 프로젝트, 우물안 개구리 등 광주를 대표하는 젊은 뮤지션들이 무대가 마련돼 있다.

또 별장이 열리는 시간(오후 7시~11시) 창작스튜디오 다다(대인수산시장 주차타워 5층)에서는 ‘남량’이란 주제로 세시봉(歲時·Bon) 전시를 만날 수 있고, 한평 갤러리에서도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그 외에도 방문객들의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미술품 경매’는 21, 22일 오후 8시 아트콜렉션샵 미담 앞에서 진행된다. 문의 062-233-142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대인예술시장 ‘별장’의 거리공연 모습.

## 국립중앙도서관, 옛날 신문 6종 DB 구축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검색

국립중앙도서관은 1902~1903년 나온 ‘제국신문(帝國新聞)’을 비롯해 옛날 신문 6종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디지털화되는 신문은 제국신문, 조선신문, 가정신문, 군산신문, 동광신문, 민주중보 등 1950년 6월 이전에 발행된 62권, 1만3051면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미래창조과학

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2013년부터 귀존본 고(古)신문 DB 구축사업을 해왔으며, 15억원을 투입하는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옛날 신문 20종이 디지털화된다.

이들 신문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www.nl.go.kr)에서 자료검색을 통해 볼 수 있다. 기사 제목이나 키워드 검색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서관은 지난 2007년 구축한 조선총독부 관보활용시스템(http://gb.nl.go.kr)도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호남예술제**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전국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인 호남예술제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최근 10여년간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최고상 수상작 전시 호남예술제 출신, 작가, 심사위원 등 후원작가 작품 전시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88(입장료 무료)

**2015. 8.13(목)~8.22(토)** 오전10시 ~ 오후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 2전시실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